

질어진 ‘R의 공포’에 돌파구 안보인다

한미 통상협에서 ‘7월 패키지’ 공감대...새정부로 공 넘겨

합의 유보에 엇갈린 목소리...“유효한 협상 전략” vs “맹탕”

한국과 미국이 첫 고위급 관세 협의를 마쳤다. 우리측 대표로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에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면제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협의의 틀이 도출됐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 까지 ‘7월 패키지(July Package)’라는 이름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미국도 이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다음주부터 분야별 실무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이번 통상 협의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은 입장이 크게 달랐다. 탄핵 사태로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은 차기 정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속도를 늦추려 했다. 하지만 관세 조치로 국내 외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은 최대한 빨리 성과를 도출하길 희망했다.

정부는 조선·에너지 등 협력을 제안하는 한편 국내 정치 일정 등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을 설득했다. 결국 7월 8일까지는 시간을 벌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면제를 위한 최종적인 협상과 합의는 차기 정부가 주도하게 됐다. 일단 미국발 통상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한미 통상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확고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한 현 정부가 최종 결정을 대신 후로 늦춘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권을 유보

한 채 틀만 설정한 것은 유연한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협상은 빨리 시작하고 결론은 늦게 내려라(Negotiate early, decide late)’는 원칙처럼, 사전 논의는 충분히 하되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점에 최종 결정을 넘기는 방식은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이다. 협상의 장기성과 정권 이행기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전략적 설계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전혀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을 설명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끝낸 거 같다. 양당의 요구에 굴복한 준비 없는 면피용 방미였다”며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에 또 방위비 문제를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한 점도 ‘맹탕 합의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그만큼 미국의 관세 조치는 최근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유예됐지만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발효 상태에 있고, 수출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보고서(2.0%)보다 1.0%포인트(p)나 수치를 하향조정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국 중 멕시코(1.7%p)와 태국(1.1%p)에 이어 세번째로 하향조정폭이 컸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1.0%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0.7%) 이후 가장 낮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0.8%)과 비슷한 수준이다.

/뉴스스

전남, 중소기업 정책금융 신속 지원

미 상호관세 따른 수출 피해·우려기업 650억 긴급지원

전남도는 미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지역 석유화학 및 철강 등 트럼프 발 관세 피해(우려) 기업 대상 긴급 경영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나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2년거쳐 일시상황 최대 3억원 경영안정자금 이자 이차보전 2.9%p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자금지원은 전남도중소기업기밀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

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5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금을 통해 최대 2~3억원을 2~5년 이내 수출기업의 보증수수료 연 0.8~1.0%를 감감한다. 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과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연초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을 6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차액(1.5~3.5%p)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다.

/조순의 기자

4대 금융, 1분기 이자로 10조 벌었다

1분기 당기순이익 4조9천억원...분기 기준 사상 최대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5조원에 육박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기에도 예대금리차 확대에 이자 벌어들인 돈은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4조92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4조2215억원보다 7074억원(16.7%) 증가한 규모다. 이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 실적(4조9128억원)을 뛰어 넘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1조6973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조4204억원) 대비 6534억원(29.9%) 증가했다.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신한금융은 전년동기(1조3215억원) 대비 1668억원(12.6%) 증가한 1조488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하나금융은 1조1277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년동기(1조3409억원) 대비 937억원(9.1%) 증가했다. 지난 2015년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615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8240억원) 대비 2084억원(25.3%) 줄었다.

기존금리 인하기에도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건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배상에 따른 거저 효과에 이자이익이 탄탄하게 받쳐 준 결과다.

대출 자산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지원가성 자금 조달 등으로이자 이익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 1분기 4대 금융의 순이자마진은 1.69~2.01%로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올해도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분기 10조4046억원보다 2373억원(2.28%) 증가한 것이다.

실적을 견인한 건 은행들이다. 4대 은행의 순이익은 KB국민은행은 1조2644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1분기(3895억원)와 비교해 6369억원(163.5%) 급증했다. 신한은행은 1조1281억원의 순이익으로 전년동기(9286억원) 대비 1995억원(21.5%) 늘었다. 하나은행은 99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늘었다. 우리은행은 6331억원으로 전년동기(7895억원) 대비 1564억원(24.7%) 줄었다.

올해도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총 16조42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YGPA 향만물류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

신조로지텍(주) 권순욱 대표 특별강연...박성현 사장 이임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과 지역 관계자, 언론인, 시민 등을 초대했다.

이에 앞서 공사 박성현 사장은 오는 29일 오후 4시 간단한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1월 공사 제5대 사장으로 취임해 공사를 급성장시켰다.

박성현 사장은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 최우선 경영방침인 ‘발로 뛰는 영업’을 추진한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국내 수출인 총물동량 1위의 종합항만으로 성장시켰다.

1선사 1항로 유치 캠페인, 유류부두 ZERO, 적극적 배후부지 입주기 업 유치 노력의 결과로, 취임 이후 16개 신규항로 유치, 광양항 개장 이후 최초 자동차 1000만대 처리, 배후부지 물동량 128만TEU 처리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또한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풍성한 ESG 성과도 거뒀다.

박성현 사장은 임기가 4개여월나 지났지만 정국 상황이 겹치면서 후임 사장 인선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광양시장 선거 출마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1주 일전 사직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조순의 기자

전남바이오진흥원 조직개편

바이오의약품부 등 신설

전남바이오진흥원이 미래 바이오산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6센터 2실을 4본부 15실·센터 체제로 전환하고, 바이오의약품부와 그린바이오본부, 해양바이오본부,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한다.

2002년 설립된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유엔환경 원장 부임 후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오피스 지정(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지정(2024년), 천연물 전주 기표준화 허브 선정(2025년), K-바이오헬스센터 유치(2025년) 등 굵직한 국책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24년 전남도 공공기관평가 최우수 3관왕을 달성하며 기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가 또는 전남 지역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센터별로 독립적으로 기법이 추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대적인 내부 승진 등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부서 간 협력과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

1분기 매출 17조4370억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4370억원, 영업이익 5680억원, 순이익 3440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글로벌 관세전쟁 및 경제불확실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전분기 대비 매출은 약 2.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730억 증가해 실적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했다.

철강사업은 주요 공장의 수리증가로 생산 및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판매가격 상승과 원가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4.7% 증가한 4500억원을 기록했다.

에너지소재사업의 경우 포스코퓨처엠의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가 확대됐으며 음극재도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 확대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했다.



순천시-농협 ‘순천쌀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 순천시는 순천농협과 함께 이틀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년 일반음식점 기준영업자 위생교육 현장에서 ‘순천 쌀’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 쌀(나누우리)’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새청무 단일품종으로,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순천농협 자체 브랜드 쌀이다.

/순천시 제공

기아, 1분기 매출 28조원 ‘역대 최대’...이익률 10% 유지

영업이익 전년 대비 12% 감소...글로벌 판매 77만대

기아는 25일 올해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28조175억원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조86억원으로 12.2% 감소했으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4.3%, 14.8%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10.7%로,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기아10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어갔다.

기아는 “고부가가치 레저용차(RV

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판매 확대,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미 전기차 EV9 판매의 거저효과와 주요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확대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도매 기준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총 77만2648대로, 전년 동기보다 1.6% 늘었다. 국내에서는 13만4564대를 팔아 2.4% 감소했으나, 해외에서는 63만8084대를 기록하며 2.5% 증가했다.

북미와 인도, 기타 신흥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유럽은 신차 대기 수요 등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판매는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17만4000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도 27% 증가한 5만6000대를 달성했다.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로 집계됐다.

기아는 향후 EV4, EV5 등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 현지 생산 기반과 인센티브 전략을 최적화해 수익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타스만 픽업트럭과 목격기반모빌리티(PBV) 모델 PV5 출시를 통해 제품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제품 최대 30%할인...“5월 동행축제로 오세요”

내달 1일부터...13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가정의 달을 맞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 4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한다.

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만 5000개 제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소상공인 국가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동행제품 300’은 특별 기획전을 통해 선보인다.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는 소상공인 전용상생 기획

전을 만날 수 있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대방출 이벤트 및 할인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와 함께 10개 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도 20%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동행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는 세종·춘천·인천·나주 등 전국 4곳에서 내달 2~4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전주 웨리단길, 청주 상안길 등 전국 18곳에서는 순차적으로 문화공연 등 이벤트와 연계한 지역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권영안 기자